

# 도-의회, 제2공항 의견수렴 방식 합의 실패

### 3차 실무협의에도 여론조사 대상·문항 입장차 '평행선' 의회, 원 지사에 최종 면담 요청... 여론조사 여부 주목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세 차례에 걸쳐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놓고 실무협의를 벌였으나,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제주도의회는 이날 실무협의를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도민 의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면담을 제안하면서 향후 여론조사 실시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갈등해소특위)는 지난 20일 제주도 공항공청지위단과 3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결론적으로 이날 협의에서 양측

은 1~2차 실무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대상, 문항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갈등해소특위는 이날 실무협의를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주도 세 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여론조사 대상과 문항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해소특위는 "실무협의를 통해 원 지사에게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최종 면담을 요청했다"며 "향후 여론조사 기관 선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다음주에는 원 지사와의 면담 뿐 아니라 여론조사 실시 여부도 반드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두 기관의 여론조사 대상과 문항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제주도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성산읍지역 주민에 한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표본구상과 설문 문항을 단순화해 제2공항 찬성·반대를 묻는 '1개' 문항만 갖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갈등해소특위는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지역별, 성별 등을 할당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문항은 '찬·반' 문항 이외에 '현 공항 확장 여부'도 도민이 판단할 수 있게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더욱이 갈등해소특위가 이날 실무협의를 통해 원희룡 지사와의 최종 면담을 요청했지만, 최근 원 지사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현공항 확충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데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구속력 없는 참고용일 뿐'이라고 밝히는 등 조사대상과 문항과 관련한 협의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A안은 가능하고 B안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면 도민들은 A안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현 공항 확충 가능성"에 대한 여론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다음날 열린 도정질문에서도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 '구속력 없는 참고용일 뿐'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태윤기자 ty456@ihalla.com

## ■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교육의원 된 장학관, 교육감에 '맹공'

### 김장영, 교육전문직 인사 지적 이 교육감 "사정 잘 알지 않나"



교육청 내부위원으로 났고, 응시자 19명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6개월 함께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인력풀을 구성해 무작위로 평가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학관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으로 돌아와 교육감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20일 열린 도의회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장영 의원(교육위원, 제주시 중부·사진)은 "최근 들어 교육전문직 인사가 6-8개월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당사자도 힘들고, 학교에서도 업무 분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3년은 자리를 지켜야 하는 교장의 경우도 1년 마다 인사가 이뤄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의 전문성이 확보되겠다"고 이석문 도교육감에게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2015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도교육청 생활안전과장(장학관)으로 이 교육감과 한솥밥을 먹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석문 도교육감은 "예외적인 상황을 갖고 전체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이) 나랑 근무를 했었다면 말바닥에 깔린 사연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해버리면 참 곤란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교육전문직 선발시험의 경우 평가위원 모두

이 교육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무작위 위촉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연쟁은 특성화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읍면 지역 고등학교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제주시에 사는 아이들이 애월이나 대정, 성산, 함덕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성산의 경우는 1학년 전체 학생 수가 59명밖에 안된다. 고교체제개편이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뷰티와 제조업, 보건 의료 등 대부분의 특성화고는 어느정도 안정되고 있지만, 해양 부분은 잘 안되고 있다"면서도 "역지로 떠밀리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해 교육전문직 선발시험의 경우 평가위원 모두

## 이낙연,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재차 강조

###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서 언급 24일 법안소위 처리 결과 주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내 의원들을 향해 다시 한번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다. 지난 18일 제주에서 열린 민주당 현직최고위원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약속한 이후 재차 당내 총력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정기국회 기간 총력을 기울여야 할 입법 과제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정기국회는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3법, 일하

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과 함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5·18 관련 법안과 4·3 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법은 과거를 매듭짓고 미래로 전진하기 위한 법이다. 이들 법안도 차질 없이 처리되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주시면서 그만큼의 책임도 맡기셨다. 민주당 의원 모두는 그 책임에 부응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7-18일 이틀간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24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국회가 정부의 반대 입장을 극복하고 법안 처리를 관철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회·부미번기자



지난 21일 서귀포시 대정읍 서곶오름 주차장에서 열린 '제주 드론 비전 선포식' 후 제주도의 송악산 일원 문화재 지정 방침에 반대하는 하모리 일대 주민 20여명이 원희룡 도지사가 탑승한 차량을 가로막고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 제주연구원 '중립의무' 부과 강성민 의원, 조례 개정 추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대권 행보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고 있는 제주연구원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제주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는 '제주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연구 공정성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가급적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각종 공직선거에서 선거공약 개발 등 연구 활동 및 토론회 개최 등 특정 후보의 당선을 이롭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조문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방연구원의 연구 및 경영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지키는 전제 하에 성립되는 것으로 지사의 최측근인 김상협 원장 취임 이후 보도자료의 헤드라인 등이 상당히 정치색을 띠는 등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제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은지기자

## 반쪽짜리 '제주 드론 비전 선포식'

### 시위대 행사장 점거 시연 불발 사전 실증 비행은 성공적 진행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드론 이륙장을 점거하면서 제주 '드론 택시'의 시범 행사가 파행을 빚었다.

지난 21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위치한 서곶오름 주차장에서 '제주 드론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서울과 대구에 이어 세번째로 드론택시에 대한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반대 주

민들이 드론 이륙장을 점거하면서 시범 비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도는 당초 중국 이항사의 2인승급 기체를 활용해 서곶오름 주차장을 출발해 가파르도 향하는 바다 위 상공을 누비고 송악산을 거친 후 서곶오름 4·3유적지를 지나 주차장에 다시 착륙하는 경로로, 약 5km를 7분간 비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선포식에 앞서 진행된 사전 드론 실증 비행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날 선포식에서 "드론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이 집약된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제주에서

조성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지사는 "제주는 복잡한 도심, 산악지형과 바다에 둘러싸인 환경, 여러 부속섬, 거센 바람, 사시사철 따뜻한 기후 등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드론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드론 실증사업에 제주도가 최적지임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통신환경, 기상조건, 소음의 주민 수용성까지 포함해 제주에서 드론 안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제도 설정 및 운항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주에서부터 노력하겠다"면서 "정부 로드맵에 발맞춰 드론산업 조례 제정과 육성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 제주4·3희생자유족회 임시총회 소집 및 후보자 등록사항 공고

#### 제주4·3희생자유족회 임시총회(선출직 임원 선거) 소집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정관 제17조에 따라 선출직 임원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의원께서는 반드시 참석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0. 12. 1(화) 10시
- 장 소 : 제주4·3평화교육센터(제주시 명림로 430)
- 상정 의안 : 선거직 임원(회장·상임부회장 및 감사) 선출의 건
- 선거인 자격 : 당연직 및 선출직 대의원 275명 (대의원규정 제4조)
- 선거시 지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4·3유족증 중 1개)
- 선출할 임원 : 회장·상임부회장(리빙메이트), 감사 2명
- 투표시간 : 개회 후 30분 부터 13시까지
- 개표시간 : 투표완료와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실시

※ 문의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724-4343,4344)

####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선출직 임원 후보자 등록사항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선거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선출직 임원 후보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회장·상임부회장 후보자

기호	회장 상임부회장	생년월일	주소지	경 령
1	고내수	66.07.07	성산읍 고성리	(현)유족회 감사
	김윤경	53.07.24	서귀포시 중문동	(현)서귀포시지부 회장
2	현영화	48.07.11	제주시 노형동	직전제주시지부 회장
	김성도	49.06.11	서귀포시 동홍동	현4·3특별법개정특별위원회장
3	오일홍	59.09.13	표선면 가시리	직전상임부회장
	김정범	65.09.26	조천읍 황덕리	직전유족청년회장
- 감사 후보자

기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경 령
1	이상연	63.10.27	조천읍 북촌리	(현)유족회 감사
2	강학진	48.09.29	제주시 도남동	(현)내무부회장
- 후보자별 상세 사항 및 주요공약은 대의원에게 개별 우편 발송

※ 문의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724-4343,4344)

### 2021학년도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제7기 신입생 추가모집 공고 [ 친환경과수Ⅰ(감귤), 친환경과수Ⅱ(블루베리), 참다래, 한우 ]

최신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마이스터)을 육성하는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의 신입생을 추가모집 합니다.

- 추가모집전공 : 친환경과수Ⅰ(감귤), 친환경과수Ⅱ(블루베리), 참다래, 한우 전공별 0명
- 원서접수기간 : 2020. 11. 23.(월) ~ 12. 7.(월) 15일간
- 원서접수 및 문의처 : 대학 본부  
[제주대학교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1층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064-754-2694)]
-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을 참고하세요.

#### 제7기 농업마이스터대학 신입생 모집 세부기준 추가보완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5302(2020. 11. 12)호)

- 경력 증명 보완 서류 (경영주의 경영등록확인서는 필수이며 해당 보완서류로 경력을 충족하여야 함)
- ① 경영체등록 또는 품목 변경 신고를 늦게 한 경우  
(이래 중 선택 2015. 8월 12일 이전의 자료 제출)  
· 해당 품목에 대한 출하 확인서 또는 출하(판매) 계약서 ·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서(또는 보험증서, 보험료 납부 증명) · GAP, 친환경 등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서  
· 해당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영농자재를 반복적으로 구매한 영수증 · 정부나 공공기관의 농업 보조금 대상 선정 공문 또는 지급 확인서
- ② 배우자나 자녀가 경영체등록 안되어 있는 경우(2015. 8월 12일 이전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배우자(또는 자녀)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또는 자녀)의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
- ③ 입학농이 계약조건으로 경영체 등록이 늦은 경우(아래 서류 모두 제출)  
· 임대차계약서 · ②에 해당하는 서류 중 선택 · 본인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확인서